

리빙브레드 타이랜드/선교편지

샬롬! 교회와 목사님,성도님의 가정에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016년 선교훈련을 받고 인도하심을 따라 2020년 리빙브레드 타이랜드 미션을 시작한지 벌써 5년째가 되어갑니다. 그동안 세계적인 재난도 겪고 인생이라면 겪는 문제들을 동시에 대면하면서 과학과 기술혁신으로 삶의 변화를 따라가기에 급급한 현실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장소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오늘 하루의 일상도 시편23편의 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리빙브레드: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산쪽마을의 교회들을 빵으로 섬기면서 자주는 보지 못해도 그들과의 친밀함속에서 living together 를 경험합니다. 어쩌다 못가게 되면 안부를 물어주고 빵을 가져가지 않으면 빵이 먹고 싶다고 빵에 대한 사랑(?)도 표현합니다. 아직은 연약하고 동네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작은 교회지만 함께 예배드리고, 밥을 같이 먹고, 오토바이 사고로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된 아이를 안아주고 놀아줄때, 그들의 부모의 마음이 전달되어 옵니다. 아직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길도 온전치 못해 우기때는 올라가지 못하는 험한길을 다녀오면 하루는 몸살을 앓아야 하는 곳이지만 그들이 대접하겠다고

짚불에 구운 치킨을 헤드라이트를 통해 먹으면서 그 깜깜한 밤에 딱히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들과 그렇게 함께 있는것 만으로도 감사한것은 무엇때문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곳사람들은 새집을 지으면 잔치를 크게 합니다. 형편에 따라 하루종일 또는 며칠에 걸쳐 합니다. 파랑교회 성도중 믿지 않는 남편이 그 마을 무당을 초대해 굿같은 형식을 치르고, 한켠에서 교회는 교회대로 그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기이한 일도 봅니다. 태국의 날씨가 사람들을 싸바이싸바이(편하게 편하게) 만드는것처럼 믿음도 편한데로 믿는것 같지만 삶을 무 찌르듯 해석할수 없는것처럼 이들의 믿음의 방식도 옳다 그르다로 판단할수 없는것 같습니다. 그저 우리의 섬김안에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나타나시기를 기도할뿐입니다.



라오스 국경근처의 몽족 교회 타이저른은 라오스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고 결혼을 일찍해 아이들이 많습

니다. 가뭄으로 물이 말라 동네에 물공급이 되지 않고 교회에서도 저희가 방문한 주일에 물이 없어 점심을 지을수가 없었습니다. 점심은 같이 못 먹었지만 만들어간 푸딩케익을 함께 먹었는데 처음으로 성도들이 빵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여자 성도들은 배워서 팔아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푸딩케익은 최근에 고정욱 선교사가 개발한 아이템인데 모두가 좋아하는 인기있는 디저트가 되었습니다



2. 베이킹 클래스

청소년 직업훈련과 전도와 선교목적으로 빵을 만들어가는 팀들이 베이킹 클래스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빵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현지인의 재정자립을 위해 비즈니스 셋팅을 돕는 LaB의 목적과 부합되면서 꾸준히 진행중인데 인내를 가지고 좋은 롤 모델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긴 하지만 이곳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동성이 강합니다. 소극적인 태도와 계획도 생각도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어디까지 이끌고, 우리가 도와할 선이 어디까지인지 고민이 됩니다. 또 선교사가 당연히 다 해주는것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의지와 열정없이 따라오지만 어려운 일은 하지 않으

려는 사람들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 하는지 갈등도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온 도래(34)와 동생 타완(17)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남매이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따라와 주어 3개월을 함께 했습니다. 리빙브레드 사역과 베이킹 클래스는 재료비를 받지 않고 하는 사역인데 한번은 타완이 도래가 만든 브라우니 한판을 학교 친구들에게 판매하고 수익금 400بات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었습니다. 참 대견스러웠고 3월달까지는 재료비를 계속 지원해주어 수익을 올려서 4월부터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의 갈등과 실망이 충분히 보상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400بات이 타완의 삶에 적극적인 동기부여가 되길 기대합니다. 도래는 리빙브레드 사역이 있을때 일을 돕게 하여 일당을 주고 있었는데 지금 셋째 아이를 가져 당분간 못 나올것 같습니다 대신 타완이 지금은 직접 브라우니를 실습하면서 리빙브레드 사역의 보조로 일당을 받고 있고 이곳 하루 일당이 300-400بات(약10불)인데 3시간 빵 만드는보조로 150بات을 주고 있습니다.



메짠 허팍 공동체에서 사역하던 사역자 3가정이 빵 기술을 배우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 주에 한 자매가 결혼

을 하게 되어 함께 브라우니를 배우고 결혼식 디저트로 결혼식에서 풍성하게 나누게 하였습니다. 3가정 모두 독립하면서 생계가 어려워져 일을 해야 하는데 베이킹 클래스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위양빠빠오 반춤 반꾸 학교

지난 1년동안 반꾸학교 특별활동 시간으로 섬겼던 LaB의 커피와 베이킹 클래스를 잘 마쳤습니다. 10명의 아이들이 처음 경험하는 커피와 제과 실습을 통해 스스로를 뿌듯하게 여기고 자신감을 가지는 것을 지켜보는 시간이었기에 오고 가는 길이 멀었지만 충분히 보상을 받은 시간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감사의 표시로 6학년 졸업 여행과 졸업식에 초대해주어서 뜻깊은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러한 사역이 가능했던것은 위양빠빠오 공립학교 사역으로 태권도와 한국어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의 합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LaB에서 학교안의 카페 설립을 돕고 그 카페에서 커피와 베이킹를 가르치고 카페의 소소한 수익이 장학금이 되어 지역사회에 교육 프로그램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련의 사역들로 연결되면서 아름답게 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학교 졸업식에는 보통 절에서 나와 예식을 가지는데 이번에는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과 저희 포함 3가정의 크리스찬 선교사가 이 학교를 섬기고 졸업식에도 참석하여 교장선생님이 절의 승려들을 부르지 않고 한국선교사님이 축도하고 축복하며 아이들이 다함께 주기도문을 외우는 놀라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학교를 통해서 복음이 지역사회에 편만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졸업여행 또한 서로 잘 모르고 다른점도 많았지만 이곳 학교시스템과 분위기를 경험할수 있는 또 다른 living together의 경험이었습니다. 참 신기한것은 아이티에서 그 사람들의 강박함에도 그들이 그렇게 예뻐던것처럼 이곳에서도 우리의 눈으로 보면 판단할것이 많은 사람들이지지만 술마시는 선생님조차 예뻐보인다는 것입

니다. 더 신기한것은 태국에 온지 5년째 되었지만 사역 외는 치앙라이 밖을 벗어난적이 없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저희가 버스로 가는데만 10시간이 넘는 1박3일의 여정을 그들과 기쁘게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시편 4:7 에서 말씀하신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함보다 더 한 기쁨', '우리 안에 두신 예수님의 충만한 기쁨'(요15:11)이고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습3:17)임을 깨닫습니다.



4. LaB

치앙라이 와이웬 베이스 DTS(예수제자 훈련학교)의 학생들을 격려하고 부족한 아웃리치 재정을 랩팀에서 장학금으로 들어온 펀드로 기부하였습니다. 한국음식도 준비하여 베이스 식구들에게 점심식사로 대접하고 학생들과 함께 아웃리치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서울의 목회자 DTS 팀이 태국으로 아웃리치를 와서 저희 센터를 방문하고 예배를 드리며 기도와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젊지 않은 목회자들이 저희를 위해 울동도 마다 앓고 찬양하며 축복해주었고 처음 계획과는 다르게 랩이 아니라 저희 3가정에 각각 후원금을 주셨습니다. 아마 각 가정안에 위로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동라와족 아웃리치를 가서 섬겼던 동라와 가정교회의 성도 가정이 아들의 학교입학과 랩팀의 천선교사님이 섬기는 교회의 헌당식에 참석하기 위해 치앙라이를 방문했습니다. 우울증으로 자살을 시도했던 아들 갑단이 작년 크리스마스때 세례를 받고 이곳에서 다시 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천선교사님이 다니시는 현지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잘 성장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5. 가스펠 홈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가스펠홈 식구 모두 건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한해가 되

기를 소망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노트를 한권씩 주고 일기를 쓰도록 권면했는데 아이들이 일기 쓴것을 보면 웃음이 절로 납니다. 글씨를 참 잘쓰는 아이,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 아직 글씨를 제대로 못써서 꼬적거린 아이, 내용은 알수 없어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일기쓰는 시간을 통해 아이들이 자기 마음을 들여다 볼수 있고 정서를 배울수 있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새해부터는 매달 생일 축하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1월에는 칸과 프래와, 2월에는 누디의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케익의 촛불과 생일축하 노래 그리고 조그만 선물이



이들에게는 큰 이벤트입니다. 왜냐면 자신의 존귀함과 정체성에 자신없어 하는

소수민족 아이들에게 자기를 세워주고 개인적인 관심을 받는 날 이기때문입니다.

지난달부터 보통은 무표정
하던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
과 까불기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좋았던지요. 예배후 음식문화 체
험을 위해 월남쌈을 같이 만들거나 김밥을 같이 마는 시
간도 함께 해봅니다. 아짠모세는 친구의 용접일을 눈 보
호안경을 쓰지 않고 도와주다가 눈이 진물이 날정도로
상했습니다. 다행히 안약을 넣어주고 더 나빠지지는 않
았지만 기본적인 상식을 몰라서가 아니라 열악한곳에
서 몸으로 해내야 하는 환경때문일 것입니다.

학교 방학이 시작되어 아이들은 3월부터 두달간 산위
의 집에 있습니다. 칸(16)은 보통 소수민족들의 부모가
그렇듯 엄마가 파타야 관광지 유흥업소에 일을 시키려
고 했는데 저희들도 반대하고 칸도 원하지 않아 방학동
안 가스펠홈에 있습니다. 지금은 모세의 아들 요한,조셉
과 함께 Chiangrai Christian Academy



는 신실한 아카족 청년이다
음세대 교육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정식 사립학교로 인

가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교재는 미
국의 School of Tomorrow 라는 크리스찬 홈 스쿨용인

데 미국학교에 전학이 가능한 교재이며 교과서가 복음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현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좋은 교재입니다. 그러나 교재에 대한 정부 인가를 받지 못해 5년째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립학교라서 등록금이 비싸지만 비지니스 수익이 아니라 사역을 위해 후원을 받아 장학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정 상황을 알아서 수강료를 전기세 정도만 받겠다고 했지만 너무 귀한 사역을 하는 청년과 학교를 위해 무리하더라도 일주일에 한번 8주 과정 6000밤(약200불)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카오흠(9)이 영어를 배우고 싶어 했는데 수강료는 저희가 지원하지만 부모가 점심비와 교재비(150밤)를 내야 된다고 하니 부모가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떻게든 교육의 기회를 주려고 하는 사람들과 자식의 교육에 조그만 돈도 쓰고 싶지 않은 부모, 중학교 올라가는 비율이 50%, 고등학교 올라가는 비율이 25%, 그나마 학교를 들어가도 방학동안 임신하게 되면서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산위의 소수민족 자녀들의 삶은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전에 아이들과 저녁을 함께 먹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경미 선교사가 한국어를 가르쳤던 Jin 이라는 대학생이 이번에 대학을 졸업하면서 Paul 의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가스펠 홈에 잠시 있기

로 했는데 Paul도 Jin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신실한 청년들이며 태국어를 통역해주는 귀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준비한 태국 전통음식인 무까타(샤부샤부)와 저희가 만든 주먹밥을 함께 맛있게 먹고 아이들을 보내면서 참 감회가 깊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집에 하나씩 가구를 들고 아이들이 필요한것들로 하나씩 채우고 말은 통하지 않아도 함께 예배드리고 먹을것 입을것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볼때마다 안아주면서 멍한 표정들의 아이들의 모습에 웃음이 생기고 이러한 웃음을 보기 위해 애써준 모세와 하나부부에게 감사했고 잘 따라준 아이들에게도 감사했고 이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과 뉴욕 RisinRock교회, 정기후원자들에게 모두가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방학동안 건강하게 지내고 가족과 좋은 시간을 가지길 당부하면서 여름방학 숙제로 마가복음서 써오기를 내주었습니다. 글씨 못쓰는 아이는 조금 걱정을 했지만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격려해주었고 숙제를 못했을때 장학금에 문제가 있을거라는 협박(?)도 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두달사이 쑥 커서 돌아올텐데 안전하게 지내고 돌아오도록 기도하여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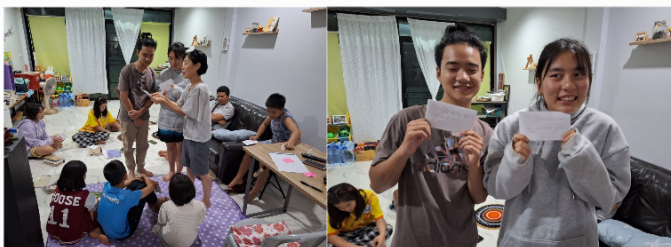
5월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가스펠홈에 4명의 남자아이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모두 미얀마에서 오는 아이들입니다. 현재 미얀마 상황이 군부 쿠데타와 내전으로 더 악화되면서 강제 징집과 함께 많은 미얀마인들이 국경을 넘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베이킹 클래스 과정을 추진중인 신학교가 있는 메사이 국경 따질렉은 취업사기문제와 치안문제로 여행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들은 신분증 없이도 넘어 올수 있어 아이들만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두명의 아이는 하나의 조카들이고 다른 두아이(고아)는 모세 친구가 돌보고 있다가 도저히 돌볼 상황이 못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무턱대고 4명을 데려오겠다는 모세의 말에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우리가 재정으로 더 도와줄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도 설명해주고 새학기부터 아이들 교육비(영어2명 뮤직2명 태권도6명)로 5000밧(약170불) 정도 새 펀드가 필요한 상황이며 그나마 부모로부터 받는 작은 보조도 없이 어떻게 아이들을 돌볼수 있을지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저희를 오히려 위로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니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모세부부가 저희를 의지하거나 선교사를 이용하는 사역자들이 아니기에 지금까지 함께 해왔고 가스펠홈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함께 그리고 있는데 그의 맹신처럼 보이는 믿음앞에서 계산과 걱정부터 하는 저희들의 믿음은 무엇일까 생각해봅니다. 확실한 것은 저희가 모세의

입장이 되었어도 아이들을 거절하지 못했을것입니다. 4명의 아이들이 오면 모자람과 쓸것이 줄어들기때문에 받지 않는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모자람을 방관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 잠깐 정신을 차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확인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4명의 아이가 가스펠홈 식구 로 오는 것을 환영하며 잘 적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자녀들이 되길 기도하여 주십시요. 더불어 아이 들을 위한 정기적인 후원이 하나님의 예비된 손길을 통 해 지원될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요.

가스펠홈 현재 정기 후원금:15000บาท (약500불)- 렌트, 유틸리티,생활보조금,장학금

필요한 정기 후원금 10000บาท(약350불)- 교육비, 4명 아이들 식비

칸 또한 이번 새학기부터는 엄마가 한학기 허팩비 5000 บาท을 내지 못해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한것은 김수진 집사님의 딸 에스더가 지난 12월부터 칸과 요한



에게 자기 용돈을 나누고 있습니다. 작지만 소중한 나눔으로 에스더도 칸과 요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치앙마이 신학교에 다니고 있는 모세의 딸 다오가 이번 방학에 남부 무슬림 지역에서 인터십을 합니다. 비행기 티켓과 거주비가 필요했는데 뉴질랜드 흥선교사

Yesterday

The internship will run from 31 March until 31 May. Throughout this internship, we will be in Songkhla and Pattani provinces.

11:13 PM

daow beeka unsent a message.

The reason I chose to study and minister to Muslims or Islam Because I know that evangelizing to Islam or Muslims is difficult and not easy to manifest and minister to this group of people. I may have heard some stories but I really wanted to experience their way of life. and believe that they have hearts that love God very much The important thing is to learn the missionary lifestyle that I want to be and do to serve God.

11:18 PM

님이 후원 해주셨습니다. 자기에게 편하고 익숙한 지역이 아니라 낯선곳에 그것도 터프한 무슬림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아이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다오를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인터십을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올수 있도록 기도 하여 주십시오.

재정이 필요한 기도제목들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모세가 말한 4명의 아이가 저희에게 근심으로 다가왔던것 처럼 선교지의 필요가 교회와 후원자분의 근심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돌봄이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 지실것이라는 담대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돕는 손길이 주위에 계시면 '나팔수'가 되어주시고, 한정된 후원에 맞추어 안전하게 리빙브레드 사역만 하기를 원하는것이 저희와 이 선교사역에 함께하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기에 가스펠홈뿐 아니라 하나님이 지평을 넓혀주시는데마다 필요한 재정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점검을 합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돈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수 많은 변수가 있는 사람'이지 '사역'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이 우리를 섬기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

의 필요보다 그들의 필요를 먼저 채우는 섬김으로 행할 때, 어느때는 비록 빈손으로 그들에게 가더라도 그 안에서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은 성령이심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것으로 우리안에 두신 "예수님의 충만한 기쁨'이 우리 모두안에서 발견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6.근황과 기도제목

작년 가을에 와이웬의 전략적 리더를 위한 3개월 훈련 (ALLC-SLC)과정을 zoom을 통해 받았습니다. 그 일환으로 동아시아 다음세대와 리더들의 서밋 이벤트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은 5/15-5/18 까지 제주도 열방대학에서 열리게 되며 5/1 출국하여 한달 반 정도 한국체류할 예정입니다.

-5년넘게 건강검진을 받지 못해 전반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하며 아이티에서 치아 5개가 무너져서 지금은10개 정도 치료가 필요한데 몇개만이라도 임플란트를 미뤄서는 안될 시점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작은 아들 유진이가 캄보디아에서 DTS 아웃리치를 했는데 여러 상황이 안맞아 저희를 만나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이번 6월초에 큰아들 요한이가 1년 한국체류 예정으로 들어오는데 자녀들을 못만난지 5년째라서 꼭 보고 오길 원합니다.

-한국에서 일정과 필요한것들, 만나야 할 사람들, 가족과의 만남등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짧게 요약했는데도 긴 글이 되었습니다. 편지안에 담겨진 마음이 기도로 이어지길 바라며 뉴욕의 교회와 목사님 성도님을 위해서 저희와 가스펠홈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현실과 고단한 삶이 부활의 증거를 멈추게 할수 없음을 다시 확인하는 부활절이 뉴욕에서 이곳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드러지길 기도합니다.

치앙라이에서

고정욱, 경미 선교사 드림

리빙브레드

타일랜드

Gohjeongwuk@gmail.com